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9 2023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
2. 법정 스님 편지
그날은 너무 늦었을 것으로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가? 1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천한 사람 3 / 자비慈悲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삼매의 광명문을 생각하다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삶의 맛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 풀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호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3년 9월 1일 발행, 통권 343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

지난밤에는 늦도록 책을 읽었다. 현대 문명사회의 비판서이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지혜를 담은 일종의 명상 서적이다. 류시화 시인의 유창하고 아름다운 번역으로 펴낸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이다.

백인 추장(미국의 대통령)이 자기들에게 땅을 팔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우리가 공기를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판단 말인가. 우리로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부드러운 공기와 재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로부터 시들이 깎단 말인가”라고 항변한 시애틀 추장의 그 유명한 연설문을 비롯하여, 여러 부족의 추장들이 문명사회에 던진 대지와 인간의 관계를 역설한 글들로 엮여 있다.

20세기가 끝나 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어쩌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가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물질문명의 찌꺼기인 온갖 공해와 환경 오염이 날로 극심해 가는 오늘날, 원천적으로 자연인인 인디언의 삶의 지혜를 빌려서 극복의 문을 찾아야 한다.

그들은 문명인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밭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조상들의 육신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대지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대지가 풍요로울 때 우리의 삶도 풍요롭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사람이 땅을 더럽히면 곧 그들 자신의 삶도 더럽혀지는 것이다. 세상의 모

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 또한 우리의 일부분이다.”

그들은 문명인들의 도시 풍경에 대해서 자신들의 눈에는 하나의 고통이라고 하면서 그 증상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당신들의 도시에는 조용한 장소라는 곳이 없다. 봄의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듣거나 곤충의 날개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을 곳이 없다. 도시에서 들리는 소음은 우리의 귀를 욕되게 할 뿐이다. 인디언은 호수의 수면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한다. 한 낮에 내린 비에 씻긴 바람 그 자체의 향기를 좋아한다. 우리에게 공기는 더없이 소중한 것, 그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혹은 사람이든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숨결을 나누어 갖기 때문이다.”

백인과 인디언들은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글라라 수족의 추장 ‘네 자루의 총’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명인들은 뭐든지 글로 기록하며, 그래서 항상 종이를 갖고 다닌다. 그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워싱턴에는 그들이 우리 인디언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록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들 중 누구 하나 그걸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디언은 종이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진실이 담긴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어 영원히 기억된다. 인디언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그러나 문명인들의 경우는 일단 서류를 잊어버렸다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네즈페르세족의 추장 ‘고산 지대로 달려가는 천둥’은 인간의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좋은 말’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좋은 언어가 죽은 사람을 살려 내진 못한다. 문명인들은 말만 늘어놓고 아름다운 언어에 매혹되지만 할 뿐 실천하지 않는다. 아무런 결과도 없는 ‘말뿐인 말들’에 나는 지쳤다. 세상에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말을 떠들어 대고 있다.”

백인들로부터 번번이 배신을 겪은 끝에 그는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하나뿐인 지구를 형편없이 허물며 더럽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텔라웨어족의 추장 ‘상처 입은 가슴’은 다음과 같은 지혜를 전하고 있다.

“우리는 대지 전체가 어머니의 품이고 그곳이 곧 학교이며 교회라고 믿는다. 대지 위의 모든 것이 책이며 스승이고 서로를 선한 세계로 인도하는 성직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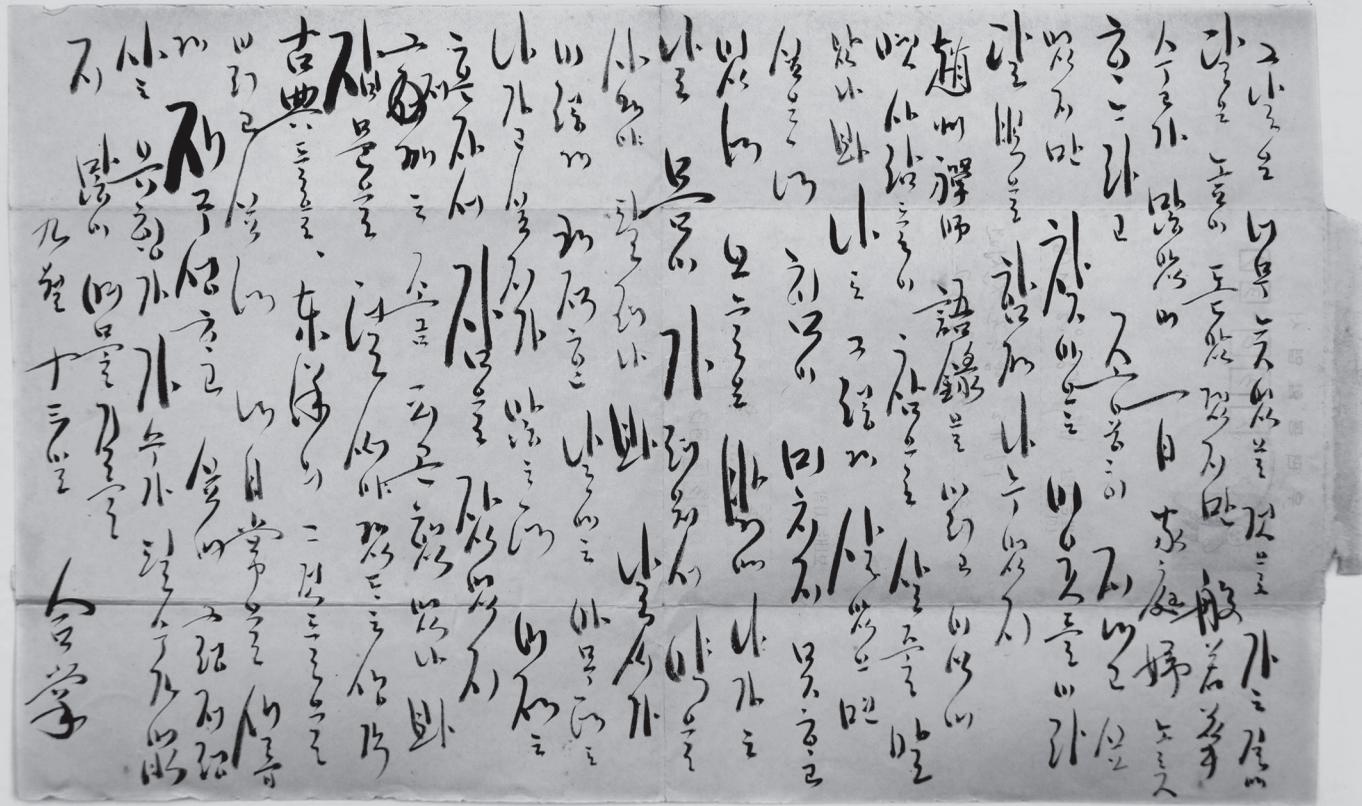
우리는 그 밖의 또 다른 교회를 원치 않으며, 우리를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에 답답함을 느낄 따름이다. 홀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중심을 잃고 헤매게 된다. 인디언은 아이

들을 키울 때 자주 평원이나 숲속에 들어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문명인들은 그것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 인간이 이

대지 위에서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자기 확인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신 앞에 겸허해진다. 자연만큼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치는 것도 없다. 자연만큼 순수의 빛을 심어 주는 것은 없다.”

이런 책을 읽고 있으면 내 영혼이 보다 투명해진다. 머리맡에 두고 수시로 펼쳐 볼 지혜의 말씀은 바로 이런 책이다. 어떤 것이 진정한 문명인이고 야만인인지를 생각해 하는 감동적인 잠언이다. 1993

2. 법정 스님 편지



그날은 너무 늦었을 것으로 가는 길에 달은 높이 돋았
겠지만.

般若華 수고가 많았어.

一日 家政婦 노릇 하느라고 조용히 지내고 싶었지만
찾아오는 이웃들이라 달빛을 함께 나누었지.

趙州禪師 語錄을 읽고 있어.

옛사람들이 참으로 살 줄 알았나 봐. 나도 그렇게 살았
으면 싶은데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네.

오늘은 밖에 나가는 날. 몸이 가려워서 약을 사와야 될
러나 봐. 날씨가 이렇게 쾌적한 날에는 아무데도 나가

고 싶지가 않은데.

어제는 혼자서 잠을 잤었지.

그저께는 조금 피곤했었나봐.

잡문을 털 써야겠다는 생각.

古典들을, 東洋의 그것들을 읽고 싶네.

내 日常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싶어.

그렇저렇 사는 유행가 가수가 될 수가 없지.

많이 여물기를.

九月十三日 合掌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반아화에게 보낸신 것입니다.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가? 1

이 글은 2004년 4월 10일 길상사 산행 단체 특별 법회에서 법정 스님이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맨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건물도 오래 지탱이 안 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건물로 치면 일종의 기초예요. 초석입니다. 초석이 없으면 건물이 설 수 없듯이 여러 불자들이 법회 있을 때마다 후원에서, 도량에서 헌신하는 공덕으로 인해 그날 법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회향됩니다.

법문이라는 게 뭐니까? 법 법法 자 문 문問 자, 법으로 들어가는 문, 진리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법사가 하는 그 법문은 작은 문이에요. 법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일이 살아 있는 큰 법문입니다.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날 그 법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진짜 법문이고 그것은 온몸으로 법을 살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궤변이 아닙니다. 법문을 만날 날 들어 봤자 그 행위가 없으면 아무 공덕이 안 됩니다. 행하기 위해서, 진리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것이지 법문 자체를 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의 단계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신해행증(信解行證).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신해에 해당돼요.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이해하는 것. 단순히 듣는 겁니다. 그런데 법문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행의 결과가 깨달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뒷바라지하는 것, 그 법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정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입니다. 행이 쌓이고 쌓이면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화엄경 입법계품 아시죠?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서 두루 예방하는 구도의 과정이 실린 경전입니다. 입법계란 법계로 들어가는 법문이에요.

맨 처음에 만난 선지식이 문수보살이에요. 지혜를 상징합니다. 맨 끝에 만난 보살이 보현보살입니다. 덕행을 상징합니다. 지혜의 완성이 뭐냐 하면 곧 덕행, 이웃에게 덕을 행하는 것이에요. 보현 행위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맨 처음이 문수보살, 맨 끝이 보현보살이라는 데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해행증, 즉 불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넘지시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보현보살에 이르러 회향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문수와 보현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형성을 위해 탐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문수의 요소예요. 또 이웃을 위해서 덕을 베풀고 굿은일을 행하는 것은 보현의 행위예요.

사람한테는 문수의 요소와 보현의 요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문수와 보현 그 두 가지 기능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지극하게 지속하고 몰입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근원에 도달하게 되면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닫고 나서 어떤 교화의 행위가 없었다면 불교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45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중생 교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보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의 의미가 새롭게 꽃피는 거죠.

종교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공허합니다. 사계(四戒)가 어찌고 팔정도(八正道)가 어찌고 아주 공허해요. 모든 종교적인 이론은 공허합니다.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이론적인 건 공허합니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행동은 공허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야말로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서 사는 것이지 추상적인 이론이라든가 관념적인 것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 친구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집에는 두 누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인 나사로한테 가면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와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언니인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예수님이 자실 음식을 마련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르다가 바빠서 마리아더러 와서 거들어 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느니라”라고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거저 노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은 좋은 몫을 택했다는 겁니다.

(계속)

4. 법정 스님 따라하기

천한 사람 강론 / 자비慈悲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숫타니파타》와 그에 대한 강론을 연재합니다.

116~142 천한 사람 강론

옛날 인도는 계급의 벽이 너무도 두꺼웠다. 계급 사이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인습의 벽이 가로막혀 있었다. 제1계급인 바라문이 길을 가다가 제4계급인 수드라를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보아서는 안 될 부정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성수로 눈을 씻고 다른 길로 해서 길을 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천한 사람(賤民)은, 인도의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은 가장 낮은 계층을 말한다. 우리의 언어 개념으로 치면 ‘천한 사람’보다는 ‘비열한 인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바라문들은 자기네 계급을 신성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탄생의 가설을 꾸며 놓았다. 바라문(사제 계급)은 자기네가 가장 신성시한 범천(梵天)의 입에서 나왔고, 제2계급인 크샤트리아(왕족)는 범천의 옆구리에서 나왔으며, 제3계급인 바이샤(일반 서민)는 범천의 오금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수드라(만져서는 안 되는 천민)는 범천의 발바닥에서 나왔다고 한 것이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허무맹랑한 가설이 그 사회의 규범을 지배했던 것. 이런 토양 위에서,

바라문이 되는 것은 출생이나 가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 부처님의 주장은, 그 당시로 보면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양반과 쌍놈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양식에 따라 귀한 사람도 되고 천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 당시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을 출신 성분별로 보면(주로, 아함부 경전에 나온 자료) 바라문 출신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왕족, 서민의 순서다. 부처님으로부터, 계행을 지키는 데 으뜸(持戒第一)이라고 칭찬받던 우팔리(優波離)는 출가 전 석가족의 이발사였다. 이발사는 그 당시 천민에 속했다. 그런데 이 천민 출신인 우팔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교단의 생활 규범인 <율장(律藏)>을 결집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처님은 <증일 아함경> 권21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강가·신두·박슈·시타 등 4대 강의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본래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바다’로 불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문·크샤트리아·바이샤·수드라 등 4종성(種姓)에 속하는 사람들이 부처님께 출가하여 그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게 되면, 다만 ‘사문 석자(釋子)’라고 불린다.”

초기 경전에는 ‘바라드바자’라는 동명이인의 이름이 더러 나온다. ‘밭을 가는 바라드바자’도 있다. 밭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부처님께 욕을 한 인연으로 결국 부처님의 재가 제자가 된다. 인연이란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그 씨앗에서 새로운 움이 트고 잎이 펼쳐진다. 인연이란 이렇듯 묘한 꼬나풀이다.

자비慈悲 1

143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144 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145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146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치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147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148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품어 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삼매의 광명문을 생각하다

대광왕이 다시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큰 자비가 으뜸이 되어
세상을 따라 주는 삼매문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은 높은 양산이 되나니,
자비심으로 중생을 두루 가려 주기 때문이다.

그는 또 수행이 되나니

하품·중품·상품의 행을 평등하게 행하기 때문이며,

대지(大地)가 되나니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맡아 지니기 때문이며,

보름달이 되나니 복덕의 광명이

세상에 평등하게 비치기 때문이다.

또 밝은 해가 되나니 지혜의 광명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경계를 비추기 때문이며,

밝은 등불이 되나니 모든 중생의

마음속 어두움을 깨뜨리기 때문이며,

물 맑히는 구슬이 되나니 중생 마음속의

속이고 아침하는 흐림을 맑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 저 보살 마하살은 여의주가 되나니

중생의 소원을 가득 채워 주기 때문이며,

큰 바람이 되나니 중생에게 빨리 삼매를 닦아

온갖 지혜의 성 안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덕을 말하며,

그 복덕의 큰 산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공덕의 밭을 우러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 서원의 바람을 관찰하며,

그 깊은 법문에 들어가며,

그 장엄한 큰 바다를 보이며,

그 보현행의 문을 밝히며,

그 삼매의 굴을 열어 보이며,

그 대자비의 구름을 찬탄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이름이 안주(安住)라고 하는 왕성이 하나 있다.

거기 부동(不動) 청신녀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왕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선재동자는 묘광성에서 나와 길을 따라가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대광왕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보살의 대자당행문(大慈幢行門)을 기억하며,

보살의 세간을 수순하는

삼매의 광명문을 생각했다.

그 불가사의한 서원과 복덕과

자재력(自在力)을 키우며,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그 불가사의한 지혜를 견고히 하며,

함께 수용(受用)하지 않는 큰 위덕을 관찰하며,

차별상을 기억하며,

청정한 권속을 생각했다.

그 불가사의한 짓는 업(所作業)을 생각하고는

환희심을 내고, 맑은 신심을 내고,

맹렬하게 날카로운 마음(猛利心)을 내고,

즐기는 마음을 내고, 뛰노는 마음을 내고,

다행히 여기는 마음을 내고,

흐림이 없는 마음을 내고,

청정한 마음을 내고, 견고한 마음을 내고,

광대한 마음을 내고,

다함이 없는 마음을 냈다.

또한 슬피 울면서,

선지식은 진실로 희귀해

모든 공덕의 처소를 내며,

모든 보살행을 내며,

보살의 깨끗한 생각을 내며,

다라니륜(陀羅尼輪)을 내며,

삼매의 광명을 내며,

부처님의 법비를 두루 내리며,

보살의 서원문(誓願門)을 나타내 보이며,

헤아리기 어려운 지혜의 광명을 내며,

보살의 뿌리와 싹을 키운다고 생각했다.

또 이렇게 생각했다.

‘선지식은 모든 악도를 널리 구호하고,

평등한 법을 두루 말하고,

평탄하고 험난한 길을 널리 보이고,

대승의 심오한 이치를 널리 연다.

보현의 모든 행을 널리 권해 닦게 하고,

일체지의 성으로 인도해 이르게 하고,

법계의 큰 바다에 두루 들어가게 하고,

삼세의 법 바다를 널리 보게 하고,

여러 성인의 도량을 널리 주고,

모든 백법(白法)을 널리 자라게 한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삶의 맛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어하는 내게
어느 날
예쁜 영양사가 웃으며 말했다

물도 음식이라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맛있게
씹어서 드세요

그 후로 나는
바람도 햇빛도 공기도
음식이라 여기고
천천히 씹어서 먹는 연습을 한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삼키기 어려운 삶의 맛도
씹을수록 새로운 것임을
다시 알았다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 4일(월)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민발식당
- 빈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숲 기행(접수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9월 23일(토) / 경북 상주시 백화산 옥동서원, 반야사 문수전(접수는 9월 4일부터)
- 10월 28일(토) / 충북 괴산군 사담계곡, 낙영산 공림사(접수는 10월 2일부터)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복합 문화 공간 '함께'(2층), 법정 스님 문화관(5층) 운영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글 나눔 사업
- 상담, 심리 치료,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 지대 아동, 청소년, 홀로 어르신 등 지원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 종료(자립 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감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가난한 절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9월 2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 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이번 다라니 기도는 입시생을 위한 특별 축원도 포함되오니 2024학년도 수능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기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 추석 합동 차례

- 선망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공양을 올리는 추석 합동 차례가 봉행됩니다.
- 일시 : 2023년 9월 29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우패 번호 1번~800번) / 설법전(우패 번호 801번~)
- 동참금 : 5만 원(영가 10위까지) / 추가 1위당 5천 원
- ※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 30분까지 참배 가능합니다.

● 2024학년도 대입 수능 100일 기도

- 입재 : 8월 9일(수) 오전 9시 50분
- 회향 : 11월 16일(목)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15만 원
- ※ 매일 미시(오후 2시) 특별 기도 축원(한글 금강경 독송 및 동참자 축원)
- ※ 설판 접수 받습니다. 설판재자는 매일 법주 스님 축원이 있습니다.

● 9월 불교 강좌. 교육 일정

강의	세부 사항
불교대학 2학기	개강 9월 5일 매주(화) 13:30~15:30 설법전 일중 스님 / 20만 원
불교 입문	개강 9월 6일 매주(수) 13:30~15:30 설법전 주지 스님 및 사중 스님 / 8만 원
경전반	개강 9월 11일 매주(월) 14:00~15:30 설법전 원영 스님 / 8만 원

● 9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9월 2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지장재일	9월 2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9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9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9월 2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증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